

루터,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다

서양의 금서 이야기 — 12

주명철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구텐베르크가 맨 처음 인쇄한 책이 《42줄 성경》이었던 데서
 알 수 있듯, 가톨릭교회는 새로운 인쇄술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인쇄술이 혁신적인 사상을 대량생산해내자 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루터는 이 혼란기에 나타난 종교개혁자였다.
 루터의 종교개혁론이 권력의 통제를 뚫고 유럽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인쇄술 덕이었다.

다음은 1517년, 휴머니스트의 왕이라고 불리던
 에라스무스가 쓴 《천국에서 쫓겨난 율리우스 2
 세》에 나오는 대화다.

율리우스 :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문이
 안 열리지? 자물쇠를 바꿨나?... 화가 나는군. 이
 문을 부숴버려야겠어. 이봐, 안에 누구 있으면 문
 좀 열어, 빨리... 문지기가 없나? 아마 술에 취해
 잠을 자는가 보다.

성령 : 늘 자기 식으로 남을 판단하는군.

베드로 : 철문을 해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녀석이 부수고 들어왔겠네. 이 사람
 은 거인이거나, 총독이거나, 정복자겠지. 하느님
 말씀이, 이 무슨 지독한 냄새! 문을 열기 전에 어
 떤 괴물이 왔는지 쪽창으로 내다봐야겠다. 당신
 누구요? 뭇 하러 왔소?

율리우스 : 문지기면 문지기답게 천상의 음악
 대를 불러 나를 맞이해야지.

베드로 : 되게 거드름 피는군. 이봐, 먼저 당신
 이 누구지 말해야지.

율리우스 : 눈으로 보고서도 모른다구?

베드로 : 그래? 하기가 내 눈에는 이상하고 비
 길 데 없는 괴상망칙한 물건이 보이는군.

율리우스는 황금열쇠를 흔들며 보여주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은열쇠며, 그리스도가 자신에
 게 준 열쇠와는 다르다며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에라스무스는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자
 칭 '가장 성스러운 자'를 '최고의 술꾼'이라고
 놀리면서 로마에 대한 지성인의 반감을 대변했
 다. 같은 해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는 루터가 장
 차 서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를 둘로 갈라놓을
 논리를 다듬고 있었다.

지배자의 골칫거리가 된 인쇄술

모든 발명은 선량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의 모
 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든 사
 람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나쁘게' 활용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권력자의 이해관계와
 맞느냐 어긋나느냐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이 결정
 된다. 인쇄물도 마찬가지다. 가톨릭 교회는 인쇄
 술을 가장 먼저 반겼다. 구텐베르크가 제일 먼저
 찍어낸 것이 《42줄 성경》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로 인쇄업자의 이름을 박아 넣은
 책도 《시편》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벌써 골칫거리를 대

량 생산하는 인쇄술을 적절히 통제하려고 노력
 하기 시작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 1501년 유
 럽에서 허가받지 못한 인쇄물을 금지하는 교서
 를 발행했다. 이 때 이미 인쇄술이 유럽의 모든
 지역으로 전파됐고, 인쇄업자는 휴머니스트와
 함께 고전을 발굴해 정확한 판본을 대량 보급하
 고 있었다. 유럽의 지식인은 라틴어 고전뿐만 아
 니라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고전의 인쇄물을 공
 급받고 있었다.

휴머니스트의 활동이 두드러진 16세기는 대단
 히 중요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 시대였다. 1517년
 부터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고, 이
 로 인해 농민봉기와 종교전쟁이 일어났다. 또한,
 유럽인이 다른 대륙에서 일으킨 정복전쟁의 전
 리품인 금·은이 유럽에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물가가 치솟아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못살게 만
 들었다. 게다가 흥흥한 인심에서 '마녀사냥' 이
 라는 광기까지 유럽을 휩쓸었다.

도미니쿠스파 수도사 요한 테첼은 면벌증을
 팔면서 이렇게 설교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부터
 안전통행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당신
 은 적의 손에서 당신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으
 며, 참회와 고백을 통해 연옥의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행복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
 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서는 그리스도 수난의 모
 든 공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첼은 사람들에게 “돈이 금고에서 짤랑거리
 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빠져 나온다”고 면벌증
 을 팔기 위한 ‘씨엠송’을 만들었다고 한다.

루터는 면벌증의 부당함을 고발하기 위해
 1517년 10월 31일 저녁에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
 에 라틴어로 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다. 루
 터는 사람들이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받
 는다고 믿었으며, 또한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채
 면벌증만 사면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전부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력히 반발했다.

6조에서 교황에게는 죄를 사해줄 힘이 없으며, 37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교도는 살았건 죽었건 면벌증 없이도 하느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혁신사상 유포에 기여한 인쇄술

루터는 인쇄술의 덕을 톡톡히 봤다. 그가 내건 반박문은 곧 독일어로 번역되고 인쇄돼 널리 퍼졌다. 사실 그는 1516년부터 틴튼이 설교를 통해서 면벌증의 효능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1517년 도미니쿠스파의 테첼이 면벌증을 파는 데 대해 루터는 10월 중순부터 동료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을 빠르게, 멀리 실어 나른 것은 역시 인쇄물이었다.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속한 아우구스티누스파와 테첼이 속한 도미니쿠스파의 갈등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논쟁이 확산되자 교황은 1518년 아스콜리의 주교 히에로니무스에게 루터 사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루터는 이단과 불복종의 혐의로 로마에 소환됐으나, 작센의 프레데릭 3세가 중재에 나선 덕택에 독일 땅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신성로마제국 의회가 교황의 주장에 대해 보여준 반감을 이용해 자기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버텼다. 그는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요하네스 에크와 토론을 벌였다. 그는 교황의 권위가 신권보다는 인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서》와 어긋나는 칙령에 대해서 저항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참회를 주장하고, 《성서》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루터 앞에서 교황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다.

바젤의 요하네스 프로벤은 루터의 95개조와 설교문을 출판했다. 1519년, 그는 자기가 인쇄한 책이 날개돋친 듯이 팔려 나가 거의 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 책은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스페인·스위스·벨기에·영국, 그리고 심지어 로마에도 들어갔다. 루뱅대학교와 쾰른대학교에서 1519년 루터의 책을 이단으로 고발하고 불길 속에 던져 넣은 것만 봐도, 가톨릭 교회와 그 지지



루터의 혁신사상은 인쇄술 덕에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사진은 루터가 1543년 번역한 《신약성경》.

루터는 인쇄술의 덕을 톡톡히 봤다. 그가 내건 반박문은 곧 독일어로 인쇄돼 널리 퍼졌다. 사실 그는 1516년부터 틴튼이 설교를 통해서 면벌증의 효능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1517년 도미니쿠스파의 테첼이 면벌증을 파는 데 대해 루터는 10월 중순부터 동료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을 빠르게, 멀리 실어 나른 것은 역시 인쇄물이었다.

자들이 얼마나 루터를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다. 교황은 1520년 루터의 글을 검열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1520년 6월 15일, 그는 “하느님 이어 일어나 심판을 내리소서”(Exsurge Domine)라는 교서를 반포했다. 그는 루터를 “하느님의 포도밭을 망치는 멧돼지”에 비유하면서, 루터의 잘못을 41가지 지적했다. 교황은 루터가 “이단이거나... 경건함을 거스르고, 순진한 사람을 유혹하거나, 가톨릭의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41가지 잘못의 해악을 너그럽게 보아 넘길 수 없노라”고 했다.

이 교서에 따라 루터는 41가지 잘못을 담고 있는 글을 60일 안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루터는 그해 8월·10월·11월에 혁명적인 논문 세편을 차례로 발표해 가톨릭 교회와 더욱 화해할 수 없게 됐다. 《독일의 그리스도교도 귀족에게 고퇴》은 교황이 세속 지배자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주장을 공격했다. 《교회의 바빌론 유수》는 성직제도와 성사를 거부했다. 끝으로 《그리스도교도의 자유》는 오직 믿음만을 중시하는 이론을 다시 한번 정당화했다.

교황은 1521년 교서를 발표해 루터를 파문하고, 그의 저작을 인쇄하거나, 팔거나, 읽거나, 인용하는 일을 모두 금지했다. 그는 루터의 허수아비와 책을 공식적으로 화형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실, 루터가 독일 사회의 불만을 말한 《독일의 그리스도교도 귀족에게 고퇴》의 초판은 일주일도 채 안돼 4000부가 팔렸고, 그가 번역한 《신약성경》은 닷새 만에 5000부나 팔렸다. 그만큼 루터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었다. ●